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 정약용 에세이 운영요강 -

2019. 8.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

목 차

I. 키워드로 보는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1
II. 정약용 선생 일대기	2
III. 개 요	6
IV. 참가자격 및 시상내역	7
V. 일정 및 절차	8
VI. 심사 기준	9
VII.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1
VIII. 에세이 예시문	12
[붙임] 응모양식	42

I 키워드로 보는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① 정약용 선생과 ‘남양주’

- 정약용 선생은 1762년(임오년, 영조 38) 음력 6월 16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당시 광주부 초부면 마현리)에서 아버지 나주정씨 羅州丁氏 재원載遠과 해남윤씨 海南尹氏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 남양주 출신 대학자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와 인문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고자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② 정약용 선생과 ‘2월 22일’

- 정약용 선생은 1836년 4월 7일(음 2.22.) 회혼례 당일 돌아가셨는데, 회혼례란 부부가 혼인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치르는 혼례 의식을 말합니다. 회혼일 이자 서거일인 그 날을 추모하고 기념하고자 2월 22일에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의 시상식이 열립니다.

③ 정약용 선생과 ‘숫자 18’

- 정약용 선생과 ‘18’이라는 숫자는 연관성이 아주 깊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 총 18명의 인원에게 시상합니다.

탄 생	1762년 8월 5일(음6.16.), 18세기에 태어남
여 유 당	당호堂號인 여유與猶는 1800년(정조 24), 선생이 모든 관직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지은 것으로, 사랑채에 “여유당與猶堂” 현판을 붙이고 은신함
정 조	정약용 선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께서 1800년에 죽음을 맞이함
유 배 생 활	1801년 ~ 1818년까지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한 18년 동안 1포 2서(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와 수많은 저서를 저술하고, 실학을 집대성함
생 의 마 감	해배 후 18년 뒤인 1836년, 75세의 생을 마감함

II

정약용 선생 일대기

① 정약용의 삶과 학문

- 정약용은 1762년(영조 38) 마현(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5남 3녀 가운데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진주 목사를 지낸 정재원(丁載遠, 1730~1792)으로 압해 정씨이고, 어머니는 해남 윤씨(海南尹氏, 1728~1770)이다.
- 정약용은 유형원과 이익으로 이어지는 실학을 계승하고 북학파의 사상까지 받아들여 경세치용(經世致用)·이용후생(利用厚生)을 종합하여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정약용은 1836년(헌종 2) 75세의 일기로 고향 집에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평생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과 2,700여 수의 시를 남겼다.

1. 정약용 선생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 정약용은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7세에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움이 달라서라네[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라는 시를 지었는데, 부친인 정재원은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을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 정약용은 20세를 전후해 과거공부에 본격적으로 힘을 기울였으며 22세에 과거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이때 정조 대왕을 만나 총애를 받게 된다. 23세 때 고향 마현에서 배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도중 두미협을 지나며 이벽으로부터 서양의 학문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정약용은 28세에 드디어 대과(문과)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2. 정약용 선생은 어떻게 관직생활을 했을까?

- 정약용은 28세 때 벼슬에 나아가 정조가 인재 선발을 위해 세운 규장각에서 교육 및 연구과정을 밟는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발탁되는 등 정조의 총애 속에서 재주와 능력을 발휘한다.

- 그러나, 그의 재능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세력의 정치적 공격이 고조되어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약용은 1800년(정조 24) 39세 봄에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향 마현으로 돌아왔지만,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정적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져갔다.
- 1801년(순조 1) 천주교 신앙의 전파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적들이 일으킨 신유옥사辛酉獄事 때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된다.

3.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을 어떻게 겪었는가?

- 정약용은 유배기간 동안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기회로 바꾸었다.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 라고 하면서 학문과 저술 활동에 열중했다.
-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4서 6경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였고 1818년 해배되기 전 마지막 기간에는 경세학經世學 연구에 몰두하여 《경세유표》·《목민심서》를 저술하고 해배되어 돌아온 다음 해 《흙흙신서》를 완성하였다.
- 정약용은 학문 이외에 문학적 성과도 매우 뛰어났다. 수많은 서정시 및 사회시를 지어 19세기 초반 조선의 풍속과 세태를 읊으며, 압제와 횡박에 시달리던 농어민의 참상을 눈물어린 시어로 대변해 주었다.

4. 정약용 선생의 해배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가?

-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정약용은 평생 지은 저술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는 한편, 소론계의 석천石泉 신작申緯, 노론계의 대산臺山 김매순金邁淳,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등과 같은 당대 석학들과 학문 교류를 통해 19세기 학술사의 큰 업적을 남겼다.
- 정약용은 자신의 회갑 때,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썼는데, 여기서 자신의 호를 사암俟菴이라 했다. 이는 “백세 이후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됨이 없다[百世以俟 聖人而不惑]”에서 따온 이름이다. 정약용 선생의 학문적 자부심이자, 훗날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로 해석되기도 한다.

② 정약용 연대표

1762년(1세)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에서 부 재원載遠과 모 해남 윤씨 사이의 제3남으로 출생하다
1765년(4세)	천자문을 읽기 시작하다
1768년(7세)	시를 짓기 시작하여 10세 이전에 《삼미자집三眉子集》을 남기다
1776년(15세)	호조좌랑 홍화보洪和輔의 딸과 관례를 치르고 약용若鏞이라는 관명冠名을 얻다
1777년(16세)	이가환李家煥과 자형 이승훈李承薰을 쫓아 성호星湖 이익李翼 선생의 유고遺稿를 읽고 사숙하다
1783년(21세)	초시와 회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선정전宣政殿에서 정조의 지우를 입다
1784년(23세)	이벽과 함께 배를 타고 두미협을 내려가면서 서교西敎에 관하여 처음으로 듣다
1789년(27세)	대과에 급제하고 이어서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발탁되다 겨울 배다리[舟橋]의 규제規制를 작성하다
1792년(31세)	화성의 설계를 명받고 거중기舉重機를 설계하여 4만 냥의 공사비를 절약하다
1794년(33세)	경기도암행어사로 나가 연천, 파주, 장단의 구악을 일소하다
1795년(34세)	7월 천주교도라는 무함이 있어서 그 지방의 천주교도를 회유하도록 금정도찰방金井道察訪으로 외보外補되다
1797년(36세)	윤6월 곡산부사로 제수되다 부임하는 길목에 전임 수령의 부정을 탄핵한 이계심李啓心이 자수하였는데, 그 진상을 듣고 격려, 석방하였다. 부임 후에는 민고民庫를 개혁하고 유형거游衡車를 제작하며 가좌부家坐簿를 정비하다

1800년(39세)	정조의 승하로 고향으로 돌아와 소천菴川에서 강학하며, 그곳에 여유당與猶堂의 편액을 달다
1801년(40세)	신유사옥으로 투옥되었다가 형 약전若銓은 흑산도, 약용은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강진으로 이배되다
1805년(44세)	백련사에서 혜장惠藏과 교유하다. 고성사의 보은산방寶恩山房으로 거쳐 옮기다
1808년(47세)	만덕사萬德寺 서쪽에 있는 윤단尹傳의 초당으로 이사하다
1810년(48세)	큰아들 학연이 부친의 억울함을 상소하여 해배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석방되지 못하다
1814년(53세)	죄인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어 석방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다
1816년(55세)	흑산도에서 형 약전이 사망하다
1818년(57세)	<p>해배에 임하여 그는, 스스로 경영하던 전답을 기본재산으로 양반 제자와 중인제자가 모두 참여하는 다신계茶信契를 조직하게 하고, 초의草衣 선사 등 불교 승려들은 전등계傳燈契를 조직하게 하여, 길이 우의를 다지도록 하다</p> <p>9월 고향 마현馬峴으로 돌아오다</p>
1822년(61세)	회갑을 맞아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짓고 더 이상 저작에 마음 쓰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자연을 즐기다.
1836년(75세)	홍씨부인과의 회혼일에 마현에서 별세하다
1910년 7월	<p>정헌대부正憲大夫 규장각제학 문도공文度公이란 시호를 내리다</p> <p>넌리 배우고 많이 들은 것을 문文이라 하고[博學多聞日文] 일을 처리함에 의에 맞는 것을 도度라고 한다[制事合義日度]</p>

III 개 요

1 목 적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인물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및 인문정신 계승
- 인문정신의 사회적 확산 및 창의적 인문인재양성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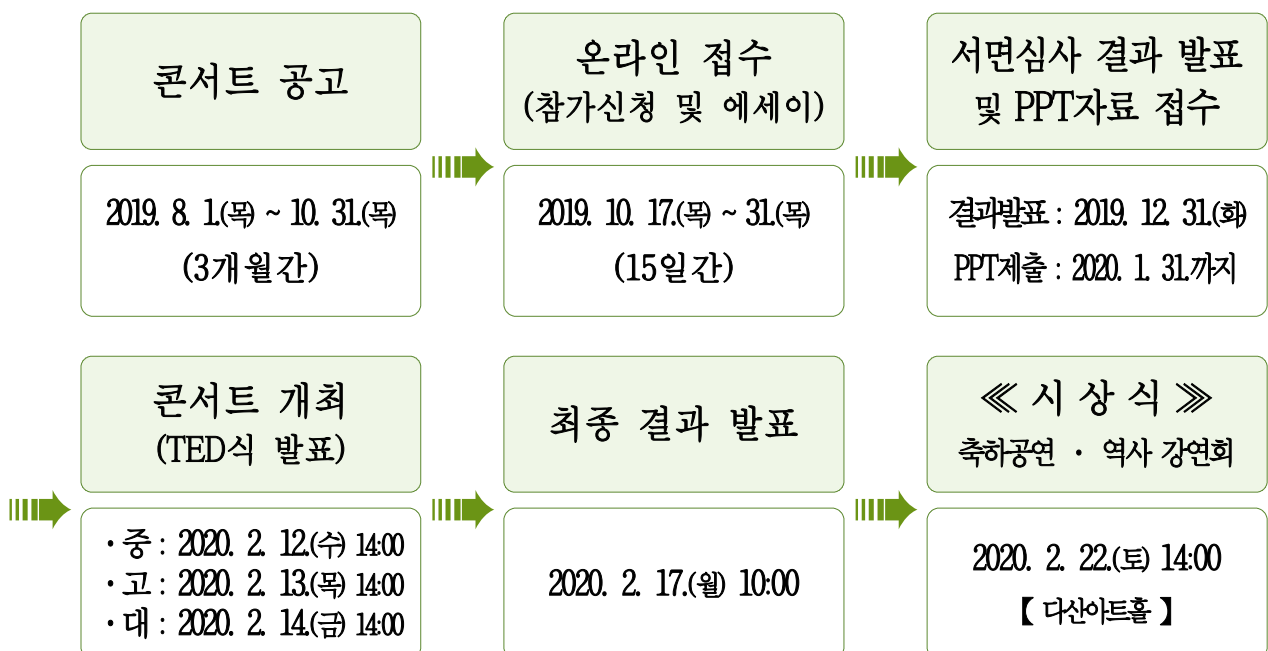
2 에세이 논제

- 1700~1800년대 세계를 움직인 세계사적 인물의 사상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과 마음을 가지고 현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필수 키워드 : 남양주 또는 정약용)

3 운영기관

- 주최/주관 : 남양주시 /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
- 후 원 : 교육부

4 추진 일정



※ 1836. 2. 22.(헌종2년) 정약용 선생의 서거일 & 회혼일

IV 참가자격 및 시상내역

① 참가대상

참가 부문	참가 자격
중 등 부	응모기간 동안 전국의 중학교 재적 중인 학생 또는 14-16세 (2006년~2004년생) 청소년 개인
고 등 부	응모기간 동안 전국의 고등학교 재적 중인 학생 또는 17-19세 (2003년~2001년생) 청소년 개인
대 학 부	응모기간 동안 전국의 대학(교) 학부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 개인

② 시상금

구 분	시 상 내 역	훈 격
합 계	총 18명	
중 등 부 (6명)	· 흠흠신서상(6명) : 이탈리아, 영국 등 국외 연수 ※ 연수기간 : 2020년 7~8월 중, 10일~15일간	남양주시장
고 등 부 (6명)	· 정약용대상(1명) : 8백만원 · 목민심서상(5명) : 각 4백만원	
대 학 부 (6명)	· 정약용대상(1명) : 10백만원 · 경세유표상(5명) : 각 4백만원	

<특 전> · 부문별 공개발표심사 대상자(18명) 중 수상자 6인 외 12명 : 태블릿 PC 지급
· 부문별 1차 서류심사 우수자 36명 : 기념 티셔츠 지급
(공개발표심사 대상자는 콘서트 당일 티셔츠 착용하고 발표)

※ 부상(시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임

※ 중등부 수상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국외연수 기간(2020년 7~8월 중, 10일~15일간)에 참여 못 할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양도 및 다른 방식의 부상 수여는 불가(상장은 수여)

V

일정 및 절차

① 응모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19. 10. 17.(목) 09:00 ~ 10. 31.(목) 18:00까지 / 15일간
- 응모 방법 : 온라인 접수 (공식 홈페이지 <http://www.jconcert.org>)
- 제출 서류

1.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식

-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전자양식 작성)
- 대회규정 준수 및 심사결과 동의 서약서
- 사진·영상 촬영,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응모작 이용 허락 동의서
- 에세이 요약서 및 본문

2. 재적증명서(중·고·대학생) 또는 주민등록초본(학교 밖 청소년)

② 추진 절차

구 분 \ 참가부문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① 서 면 심 사	2019.11.1.(금) ~ 12.30.(월) 【60일간】 ※ 1차, 2차 서면심사 진행		
② 결 과 발 표 및 PPT자료 제출	2019.12.31.(화) 10:00 홈페이지 공고 ※ PPT자료 제출 : 2020.1.1.(수) ~ 1.31.(금) 【제출시 가점부여】		
③ 공개발표 심사	2020.2.12.(수) 14:00	2020.2.13.(목) 14:00	2020.2.14.(금) 14:00
④ 시 상 식	2020. 2. 22.(토) 14:00 ~ * 축하공연, 상장수여, 역사 강연회		

VI 심사기준

① 심사방법

- 심사위원단 : 관련분야 전문가 및 권위자로 구성
- 심사 기준 : 중고등대학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하되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점수제 시행

※ 점수제 : 5명~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임의의 기준 점수 안에서 점수를 부여하되 제일 상위점수와 제일 하위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계 평균치 (개인별 성적은 비공개 원칙)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순으로 결정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② 서면심사 기준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기준에 따라 전체 응모작을 부문별(중등부/고등부/대학부)로 총 2회에 걸쳐 심사
 - 1차 : 심사위원 평균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각 부문별 36명씩(6배수) 선발
 - 2차 : 심사위원 평균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각 부문별 18명씩(3배수) 선발
- 심사위원 평균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각 부문별 18명 선발

심사 항목	심사 지표	평가점수
내용의 적합성 및 논리 전개	- 에세이 논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의도에 맞게 논지를 설정했는가? - 전개와 결론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였는가? -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만한 근거, 사례,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 필수 키워드를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30점
독창성 및 참신성	- 자신만의 창의적 관점에서 전개하였는가? - 자신의 생각을 개성 있게 표현하였는가? - 인용한 자료에 자신의 고유한 해석을 더했는가? - 논제와 연계된 요소를 다양하게 추출하여 논의를 전개했는가?	35점
문장 구성 및 표현 능력	- 전체적인 글의 구조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글이 매끄럽게 전개되었는가? -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였는가? - 분량이 적절하고 어문 규정(구두, 문법, 철자 등)을 준수하였는가? - 단어의 선택이 적절하고 문장 간의 결합이 적절하였는가?	35점
합 계		100점

③ 공개발표 심사 기준

- 발표순서는 주최 측에서 정하며, 심사 당일(또는 며칠 전)에 공개함
- PPT자료를 활용한 TED식 발표 (PPT자료가 필수는 아니나, 제출 시 가점 부여됨)
- 부문별 심사대상자 18명의 “7분 구두발표” 를 시행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서면심사(100점 만점)와 공개발표심사(100점 만점)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순으로 수상 순위를 정함

※ 서면심사와 공개발표심사 점수는 각각 심사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임

심사 항목	심사 지표	평가점수
내 용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및 구성력 - 자신만의 창의적 관점, 자신의 생각 투영 정도 - 주제에 대한 이해도 - 발표의 논리성 및 질의에 대한 적절하고 명확한 응답 여부 	40점
발 표 역 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의 명확한 전달 및 음성표현 - 비언어적 요소(제스처, 자세 등)의 적절한 사용 - 청중과의 교감 및 호응도 - 발표 제한시간(7분) 준수 여부 	40점
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에 대한 열의와 열정 정도 - 청중을 고려한 참여적이고 편안한 진행 	15점
P P T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자료 제출여부 (가점) 	5점
합 계		100점

VII 에세이 작성방법 및 참가 유의사항

① 에세이 작성 방법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 한글로 작성하되, 기호나 학문용어(외국어) 사용 가능
- 그림이나 사진이미지 사용 불가
- 분량 제한, 글자 크기 등 세부작성 기준은 붙임 양식 참고
- 필수 키워드(남양주 또는 정약용) 관련된 내용의 에세이어야 함

② 참가 및 운영에 관한 유의사항

- 참가 부문별 개인으로 신청하고, 1인 1작품만 응모 가능
- 다른 외부 대회나 문집 등에 게재된 에세이는 응모 불가
- 본인이 직접 작성한 순수창작물이어야 하며 타인이 대필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 공모전 출품작 등 타인의 글을 모방, 차용 등 표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조치
- 부상(시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 중등부 수상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국외연수 기간(2020년 7~8월 중, 10일~15일간)에 참여 못할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양도 및 다른 방식의 부상 수여는 불가(상장은 시상)
- 공개발표(TED식) 콘서트 개최 세부 방식은 서류심사 결과발표 시 공지되며,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의 모든 행사는 참고자료 및 홍보 등을 위해 촬영·녹화될 수 있음
- 수상작은 홍보를 위해 공개 및 활용 가능함
- 운영 요강에 준하지 않는 출품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기타 허위사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기 응모자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통보함

중·고등부 예시 - ①

에세이 요약서

제 목 : 자본주의와 우리시대의 통찰

기원전 900년대~기원전 200년, 세계의 주요 종교와 철학이 탄생한 시기를 ‘축의 시대’라고 하며, 그 시기에 중국의 공자, 묵자, 노자가 활동했고, 인도에서는 붓다가 등장했고,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태어났다. 인간의 윤리적 각성과 철학적 성찰이 폭발하던 시대로 인간에 대한 통찰이 폭발하던 시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축의 시대의 통찰을 넘어서 적어 없으며, 축의 시대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세계 종교의 현황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축의 시대 종교들은 그 핵심에서 자비, 존중, 보편적 관심이라는 이상을 공유한다. 이 시대 현자들은 모두 우리시대와 다를 바 없는 폭력적 사회에 살았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주의의 탐욕, 폭력과 무례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의 모든 현자들은 자비를 자기 민족에게만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각기 그 나름의 방식으로 ‘황금률(Golden Rule)’을 정리해냈다.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다¹⁾.

21세기의 화두,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개념이며, 18세기에 시작된 개념,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본주의**이다. 자본은 현대사회에서 목숨 건 생활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자본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리고, 불평등과 빈부격차, 증오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가 간 무한경쟁, 실제 전쟁까지 벌어지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모순과 문제들에 대해 본질을 알지 못하면 막연한 두려움에 이끌려 따라가게 되므로, 현 자본주의 사회문제의 해결 방법, 미래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본질을 살펴보는 통찰을 통해 가능하다.

아직 가보지 않은 세상과 겪지 못한 미래에 대해 18, 19세기 애덤 스미스, 칼 마르크스와 같은 학자들, 또 그 이전 축의 시대의 현자와 같은 통찰력 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고통만큼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철학적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나아가 사회, 국가, 국제사회를 변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국가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본이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등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인간 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자연자원,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까지도 이웃이고 가족임을 인지하고,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러한 **인문적 통찰력**이 바로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²⁾’의 밑바탕이 되며, 더불어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통찰력 있는 정책과 실천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1) 카렌 암스트롱, 2010, 『축의 시대』, 정영목 역, 교양인

2) 정약용이 자찬묘지명에 ‘우리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로 표현

에세이 본문

제 목 : 자본주의와 우리시대의 통찰

통찰은 사물의 깊은 뜻이나 사정을 환하게 아는 것으로 그 통찰의 규모는 각기 다르며, 옛사람에게는 깨달음으로 인식되었다. 통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치명적 오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에 통찰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원전 900년대~기원전 200년, 세계의 주요 종교와 철학이 탄생한 시기를 ‘축의 시대’라고 하며, 그 시기에 중국의 공자, 묵자, 노자가 활동했고, 인도에서는 붓다가 등장했고,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태어났다. 인간의 윤리적 각성과 철학적 성찰이 폭발하던 시대로 인간에 대한 통찰이 폭발하던 시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축의 시대의 통찰을 넘어선 적이 없으며, 축의 시대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세계 종교의 현황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축의 시대 종교들은 그 핵심에서 자비, 존중, 보편적 관심이라는 이상을 공유한다. 이 시대 현자들은 모두 우리시대와 다를 바 없는 폭력적 사회에 살았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주의의 탐욕, 폭력과 무례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의 모든 현자들은 자비를 자기 민족에게만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각기 그 나름의 방식으로 ‘황금률(Golden Rule)’을 정리해냈다.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다¹⁾.

21세기의 화두,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개념이며, 18세기에 시작된 개념,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본주의**이다.

자본은 현대사회에서 목숨 건 생활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자본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리고, 불평등과 빈부격차, 증오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가 간 무한경쟁, 실제 전쟁까지 벌어지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모순과 문제들에 대해 본질을 알지 못하면 막연한 두려움에 이끌려 따라가게 되므로, 현 자본주의 사회문제의 해결 방법, 미래 더 나은 사

1) 카렌 암스트롱, 2010, 『축의 시대』, 정영목 역, 교양인

회를 물려주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본질을 살펴보는 통찰을 통해 가능하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알기위해 정신혁명이 축의 시대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700년대~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18세기는 봉건시대에서 자본주의시대로 바뀌었고,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량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생산품이 유통되기 위한 자유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 인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이기심을 누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지 인간을 탐구하던 학자가 있다. 바로 애덤 스미스(Adam Smith, 스코틀랜드, 1723~1790)이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지만, 경제학,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그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1763년부터 3년간 헨리 스코트의 개인교사로 대륙여행을 하면서 만난 중농주의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가의 부를 증진하는 방법에 관해 영감을 얻었으며, 영국의 산업화로 공업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노동은 부를 생산하게 되므로,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정의하였다.

스미스는 「국부론(國富論)」에서 ‘시장 경제는 수요자와 생산자의 이기심의 극대화로 가격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덕적 인간행동 규범 내에서 인간의 이기심 곧 자기이익 추구가 시장경제를 만드나,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으로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가능하다 하였으며,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익과 경제력에는 반대하였다. 스미스는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그것은 인간에 대한 연민(사랑)과 통찰의 결과인 것이다.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되며 아동 노동자의 비참한 삶을 보며 ‘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지’ 자본주의의 모순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고민한 이가 있었다. 그는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독일, 1818~1883)이다. 1867년 「자본론(資本論)」을 출간, 상품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자본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밝히면서 나아가 자본주의가 내적 모순에 의해서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규명하였다. 노동 생산성을 높여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자본가의 이기심으로 인해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고, 실업자는 증가하게 되며 임금은 하락, 시장이 붕괴되고, 공황 발생하는 등 자본주의 경제의 운동 원리와 그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착취당하는 가난한 노동자의 기계화에 대한 연민이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

연구하게 했으며 철학적 과학적 분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의 시대적 상황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지금의 우리사회의 상황과 엄연히 다르나, 앞서 열거한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 곧, 도덕성이 결여된 사회, 탐욕은 더 심해지고, 실업률은 증가되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사회에 대한 해결을 찾고자 하는 고뇌는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줄 끝에 돌을 달아 돌리는 돌팔매질을 연상해보자. 돌팔매질의 원리는 돌팔매의 줄 끝, 원궤도의 중심(축)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과 외부로 나가려는 원심력의 힘의 크기가 같을 때는 궤도를 유지하며 돌지만, 줄을 놓는 순간 그 균형이 깨어지면 튕겨나가게 된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의 공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달의 공전과 같이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고 조화를 이룰 때 평화가 유지되며,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자연 질서가 무너지며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불균형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미래는 축의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올바르며, 지혜로운, 그리고 선한 미래**는 **돌팔매 줄의 끝, 인간 사고의 중심인 축의 시대 통찰을 통해 조화를 찾는 것으로 가능하다.**

아직 가보지 않은 세상과 겪지 못한 미래에 대해 18, 19세기 애덤 스미스, 칼 마르크스와 같은 학자들, 또 그 이전 축의 시대의 현자와 같은 통찰력 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고통만큼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나아가 사회, 국가, 국제사회를 변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국가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본이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등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인간 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자연자원, 함께 살아가는 반려 동물까지도 이웃이고 가족임을 인지하고,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러한 인문적 통찰력이 바로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²⁾’의 밑바탕이 되며, 더불어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통찰력 있는 정책과 실천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2) 정약용이 자찬묘지명에 ‘우리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로 표현

에세이 요약서

제 목 : 괴테에게 묻다 - 실패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30대가 되기 전까지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푸는지, 어떤 상황을 좋아하고 어떤 상황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조차 생각을 해야만 했다.

그동안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서른이 돼서야 한 친구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상대방의 말은 열심히 들었지만 정작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내 정신은 소위 말하는 ‘유리멘탈’보다 약하고 비눗방울보다 터지기 쉬웠다. 그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으며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다.

이번 에세이에 대해 과제를 받고 주제를 생각하면서 긴 시간 유리멘탈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실수와 자책, 시행착오 등을 에세이에 담고 싶었다.

그래서 글을 통해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 정치가이자 과학자, 세계적인 문학자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아닌 인간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실험하고 자유를 갈망했던 인간 괴테에 대해 그의 작품과 함께 접근해보고자 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의 작품 속에는 그가 고민한 사랑과 성장, 좌절, 실패, 희망, 인간성 등의 주제들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삶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괴테의 시대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가 바라본 인간은 실수하고 후회하고 반성한 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따라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성장과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헛된 욕망으로 방황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또한 실수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더 발전하려 노력할 때 유의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목표로 삼아온 것은 오직 나 자신을 한층 더 현명하게 향상시키는 일, 그리고 인격을 높이는 일이다. 더불어 내가 선 또는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표현하는 일이었다.”

괴테는 자신이 믿는 대로 살고, 산대로 믿었고, 믿는 대로 썼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와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약용도 한 번도 만나본적 없는 이익의 <성호사설>을 접하고 학문적 스승으로 삼았다고 한다. 비록 괴테와 살아온 시대도, 환경도 다르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방황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괴테가 사회에 외친 메시지처럼 언제든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기 위해 기쁘게 실패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다.

에세이 본문

제 목 : 괴테에게 묻다 - 실패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30대가 되기 전까지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푸는지, 어떤 상황을 좋아하고 어떤 상황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조차 생각을 해야만 했다.

그동안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서른이 돼서야 한 친구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상대방의 말은 열심히 들었지만 정작 나에게 관심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내 정신은 소위 말하는 ‘유리멘탈’보다 약하고 비눗방울보다 터지기 쉬웠다. 그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으며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다.

이번 에세이에 대해 과제를 받고 주제를 생각하면서 긴 시간 유리멘탈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실수와 자책, 시행착오 등을 에세이에 담고 싶었다.

그래서 글을 통해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 정치가이자 과학자, 세계적인 문학가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아닌 인간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실험하고 자유를 갈망했던 인간 괴테에 대해 그의 작품과 함께 접근해보고자 한다.

괴테를 처음 접한 건 고등학교 때이다. 사실 괴테를 접했다기보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접했다. 당시에는 단순한 사랑과 비극을 담은 소설이라고만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빠져들지 못하고 금방 책을 덮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30대가 되어 다시 만난 괴테는 달랐다. 이번 에세이를 위해 다시 읽은 소설은 그 시대와 삶에 대해 고뇌하던 괴테의 자선적 소설로 다가왔다.

괴테가 살던 시대의 고뇌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괴테가 소설을 통해 보여주는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괴테가 작품 속에서 고민한 사랑과 성장, 좌절, 실패, 희망, 인간성 등의 주제들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삶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괴테의 시대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시대적 배경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괴테가 살았던 18세기 중반 이후의 유럽은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사상의 대립으로 혼란스러웠다. 계몽주의는 이성을 중시했고, 낭만주의는 인간의 감정을 이성보다 중시했다. 또한 집단과 사회보다는 개인을 더 중시했다. 계몽주의자가 보기에 이런 생각들은 감성에만 치우쳐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했

다. 반면에 낭만주의자들은 계몽주의가 인간을 계산만하는 기계로 만드는 악마와도 같은 것이라며 배격했다.

이러한 사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파되는 동안 변질되어 그 혼란은 더 가중되었다. 특히 독일의 계몽주의는 시민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낡은 체제를 수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변질된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이 새로운 문예활동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독일의 젊은 작가들이 주도한 ‘질풍노도 운동’이다.

질풍노도 운동 시기의 독일 작가들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일인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자연관을 형성하며 개인적인 자유를 모색하는 내용의 작품들을 발표했다.

자유를 열망하며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았던 괴테는 가장 열정적으로 질풍노도 운동을 펼쳤다. 인간과 사회는 오직 자유 속에서만 진정한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괴테는 자서전 <시와 진실>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는 요구의 시기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 또는 타인을 향해서 아직 아무도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요구했다. 즉 사려 깊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자연에 관한 직접적이고 독창적인 견해와 그것에 기인한 행동이야말로 인간이 소망할 수 있는 최선이며, 또 그것을 획득하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체험이라는 말이 또다시 우리의 신호가 되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한 눈을 크게 떴던 것이다.”

여기에서 “체험”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 가지고 있는 ‘생생한 의식’이다. 작가는 스스로 체험을 통해 생각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새로운 이야기로 표현한 것이다. 괴테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상적인 상황을 위하여 인위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자연에 가까운 삶,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려했던 자신의 생각을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담았다.

“일찍이 나는 바위 위에서 강 건너의 저 언덕까지 이어진 풍요한 골짜기를 바라보고, 주위의 모든 것들이 싹터 자라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소. 저 멀리 있는 산들은 기슭에서 봉우리까지 울창한 나무로 덮여 있고, 꾸불꾸불 뻗어 내린 골짜기에는 아름다운 숲이 그늘을 던지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시냇물은 속삭이는 갈대 사이를 미끄러지듯 흘러가며, 산들거리는 저녁 바람에 불려 온 꽃구름을 비추고 있었소. 그리고 새소리는 사방에서 기차게 춤추고, 풍뎡이들은 태양의 마지막 섬광을 받으며 풀숲에서 해방되어 뱅뱅거리면서 날아다녔소.”

단순히 자연의 세밀한 묘사가 아니라 모든 광경을 ‘모든 것이 싹트고 생기에 넘치는 것’ 이라고 동경하고 있다. 베르테르는 이어서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려 노력한다.

“생명을 지닌 것들이 천태만상으로 이 세계에 가득 차 있던 말ियो. 그런데 인간은 그 조그마한 집에 모여 살면서 몸의 안전을 도모하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으면서 밖에는 넓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줄만 알고 있는 걸세. 오, 가없고 어리석은 존재여.”

스물다섯 살의 젊은 괴테가 7주간 쓴 이 소설은 출간 당시, 유럽의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만들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단순한 사랑의 비극을 넘어서 젊은 지식인의 현실극복을 위한 고뇌와 갈등, 투쟁이 묘사되고 있는 작품으로 소설 속 베르테르가 즐겨 입던 푸른색 연미복과 노란색 조끼가 당시 젊은 층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정도였다.

사랑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묘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도 괴테는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집어넣어 사랑과 갈등 외에도 많은 사회문제들에 대한 사색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괴테는 소설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괴테가 베르테르의 입을 빌려 말하기도 한다.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모색하고 싶은 욕망은 어쩌면 내 안에 잠재된 불편한 조바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싶네. 그 조바심은 어딜 가나 내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닐 걸세.”

자신의 생각과 체험을 담아 인간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괴테의 배경을 보면 ‘엄친아’ 을 넘어선다. 괴테의 아버지는 아주 부유했다. 어머니는 다정다감했으며, 직접 책을 읽어주며 그의 지성과 감성이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뛰어난 가정교사들을 두어 괴테가 언어와 과학, 수학, 예술 등을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모와 교사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엄친아’ 괴테는 16살에 대학에 입학했다. 이후 괴테는 20대에 온 유럽을 뒤흔든 베스트셀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의 작가가 되었고, 30대에는 바이마르 공국의 행정가이자 과학자로 명성을 떨치고, 40대 이후에는 다양한 희곡, 시, 소설, 평론 등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든 사상가로서 존경을 받았다. 괴테는 수많은 분야의 글을 쓰고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평생 지속했다. 그의 편지와 일기, 자서전 등을 보면 자신의 재능을 믿고 성공을 확신한 적이 없다.

스물다섯 살에 완성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부터 괴테가 23세부터 쓰기 시작

하여 죽기 직전인 1832년에 완성된 <파우스트>까지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그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을 무엇인지 제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할 무렵 19세기 사회는 이성에 의해 사회가 진보할 것이라는 믿음이 유행하였고, 내세보다는 현재의 쾌락을 더 중시하는 시대였다. 그는 그런 세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인간은 체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파우스트>에도 잘 나타나있는데 본래 전설과는 다르게 파우스트가 헬레나와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바꾸어 파우스트가 모든 쾌락을 즐긴 것으로 표현하였으며, 결국 주인공이 개인적인 쾌락이 아니라 사회와 타인을 위한 삶에서 만족을 얻는 장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괴테는 이 작품에서도 어김없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듯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은 <파우스트>의 독백에 남겨져 있다.

“허상인 내가 허상인 그녀와 맺어졌던 거지. 그건 꿈이었어. 이야기마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나는 스러진 채 내 자신에게조차 이대로 허상이 되는 걸세.”

“아, 나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헛된 줄 알면서도 신학까지 힘겹게 고생하며 공부했건만 전보다 조금도 영리해지지 못했구나. 이제야 인간이란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니.”

괴테가 바라본 인간은 실수하고 후회하고 반성한 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따라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성장과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헛된 욕망으로 방황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또한 실수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더 발전하려 노력할 때 유의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괴테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목표로 삼아온 것은 오직 나 자신을 한층 더 현명하게 향상시키는 일, 그리고 인격을 높이는 일이다. 더불어 내가 선 또는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표현하는 일이었다.”

자신이 믿는 대로 살고, 산대로 믿었고, 믿는 대로 썼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와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파우스트>에서 신이 메피스토펠레스의 내기를 받아들이면서 했던 말처럼 “선한 인간은 어두운 충동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알

고 있다.”

정약용도 한 번도 만나본적 없는 이익의 <성호사설>을 접하고 학문적 스승으로 삼았다고 한다. 비록 괴테와 살아온 시대도, 환경도 다르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방황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괴테가 사회에 외친 메시지처럼 언제든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기 위해 기쁘게 실패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이루어놓은 흔적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드높은 행복을 예감하면서 나는 지금 최고의 순간을 맛보고 있노라.”

-괴테, <파우스트> 중-

에세이 요약서

제 목 : 카메라옵스큐라+전신사조의 결합을 통해 본 카메라기술의 변화의 순기능
(우리의 삶에서 ‘일’ 과 ‘놀이’ 를 변화시킨 스마트폰)

카메라옵스큐라란 라틴어로 ‘어두운(obscura) 방(camera)’ 이라는 뜻으로 어두운 방 안에 혹은 어두운 상자 안에 조그만 구멍을 내서 빛을 비추면 밖에 있는 풍경이 반대가 되어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르네상스 이후부터 1830년까지 카메라의 발명 이전에 사용되던 광학기구이다. 화가들은 회화의 역사가 발전할수록 그림을 더욱 사실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욕구로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풍경을 아예 벽에 비추어 옮기기 또는 베끼기를 하였다. 카메라옵스큐라의 이용이 두드러져 나타난 시기를 ‘사실주의’ 라 부른다. ‘리얼리즘’ 이라고도 부르는 사실주의는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술사조이다. 이렇듯 서양의 미술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카메라옵스큐라는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어왔을까? 서양과학과 문물이 유입되고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학이 대두되던 조선후기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들어왔다. 한국미술사에서 카메라옵스큐라의 영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룬 분야는 무엇일까? 바로 초상화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카메라옵스큐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누가, 어디에 했을까? 바로 정약용이다. 여유당전서 제1집 제10권의 감감한 방에서 그림을 보는데 대하여’ 라는 뜻의 <칠실관화설(漆室觀畫設)> 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다. 이명호가 그린 <유언호 초상화> 이후로 조선시대 초상화의 기법은 전신사조+카메라옵스큐라가 결합되어 예술성을 뽐내는 많은 초상화들을 탄생시켰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리얼리즘’ 이 되었다. 카메라옵스큐라, 초상화, 전신사조 등을 통해 눈으로 보이는 사실과 같아 보이고 싶은 인간의 욕망, 자신의 모습을 남기기 좋아하는 점, 이러한 것들을 통한 기술의 발전으로 카메라가 발명되고 다게레오타입, 리플렉스와 같은 필름카메라를 거쳐 디지털 카메라, 현재의 핸드폰 카메라까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출시하는 스마트폰으로 현재 우리는 세상과 보다 가깝게 연결된다. 또한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서 ‘일’ 과 ‘놀이’ 를 변화시켰다. 이것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공유) 행위에 초점을 맞추자면, ‘SNS’ 는 국가, 인종을 넘어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진 개인적인 공간이자 소통의 수단이다. 요즘 이러한 ‘SNS’ 의 순기능으로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BTS’ 의 세계적인 성공이다. ‘SNS’ 로 팬들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큰 성공의 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다. 우리는 ‘BTS 열풍’ 으로 ‘SNS’ 의 폭발적인 위력을 경험하는 동시대에 살고 있다. 찍어서 올린다. 그리고 공유한다. 또 소통한다. 카메라, 스마트폰, SNS로 이어지는 긍정의 나비효과로 현재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일’ 과 ‘놀이’ 에 대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된다.

에세이 본문

제 목 : 카메라옵스큐라+전신사조의 결합을 통해 본 카메라기술의 변화의 순기능
(우리의 삶에서 ‘일’ 과 ‘놀이’ 를 변화시킨 스마트폰)

카메라옵스큐라란 라틴어로 ‘어두운(obscura) 방(camera)’ 이라는 뜻으로 어두운 방 안에 혹은 어두운 상자 안에 조그만 구멍을 내서 빛을 비추면 밖에 있는 풍경이 반대가 되어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르네상스 이후부터 1830년까지 카메라의 발명 이전에 사용되던 광학기구이다.

카메라옵스큐라에 대한 미술사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영국의 현대 작가인 데이비드 호크니에 의해서이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카메라옵스큐라가 15,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의 화가들 가운데서 원근감과 입체감 곧, 대상을 정확히 읽고 묘사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화가들은 이 카메라옵스큐라를 이용하여 벽에 도화지를 붙여 반사되는 외부 경치의 밑그림을 그렸다. 왜 화가들은 카메라옵스큐라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을까? 회화의 역사가 발전할수록 그림을 더욱 사실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비친 피사체를 도화지에 옮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풍경을 아예 벽에 비추어 옮기기 또는 베끼기로 했던 것이다. 사실과 똑같이 보이고자하는 인간의 욕망이 과학을 미술에 도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서양의 미술사조에서 화가들의 표현이 광학 기기(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표현력)에 가까워지면서 카메라옵스큐라의 이용이 두드러져 나타난 시기를 ‘사실주의’라 부른다. ‘리얼리즘’이라고도 부르는 사실주의는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술사조이다. 이전까지의 미술사조는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로 이때의 그림은 현실을 미화하거나 이상화했다. 그러나 사실주의에 들어서면서 서민의 일상을 주제로 사회현상을 솔직하게 표현한 그림이 그려졌다. “나는 천사를 본적이 없으므로 천사를 그릴 수 없다”는 구스타브 쿠르베의 말을 보면 사실주의 특징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이렇듯 서양의 미술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카메라옵스큐라는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어왔을까?

문치주의에 입각하여 학문을 탐닉하고 서양과학과 문물이 유입되고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학이 대두되던 조선후기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들어왔다. 카메라옵스큐라는 조선 최고의 화가 김홍도나 초상화의 대가 이명기와 같은 도화서 화원들의 탁월한 묘사력과 결합되어 한국미술사의 르네상스를 이룬다. 그렇다면 한국미술사에서 카메라옵스큐라의 영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룬 분야는 무엇일까? 바로 초상화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초상화¹⁾는 고구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초상화가 가장 성행하고 발달하였던 때를 조선시대로 보고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이태호 교수는 조선시대를 ‘초상화의 시대’ 라고 평가하였다.

전신사조(傳神寫照)라 하여 “터럭 하나라도 닮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다” 라는 이념 아래 사실적인 초상화들이 많이 탄생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카메라옵스큐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누가, 어디에 했을까? 18세기 말 우리나라의 젊은 학자들은 중국에서 온 서양의 책을 읽는 것에 빠져있었다. 젊은 정약용 또한 여느 젊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양의 책에 빠져들었고, 이때 카메라옵스큐라에 대해 접했던 것을 여유당전서 제1집 제10권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깜깜한 방에서 그림을 보는데 대하여’ 라는 뜻의 <칠실관화설(漆室觀畫設)>에 대해 설명한 것이 우리나라에 나타난 카메라옵스큐라의 최초의 기록이다.

또한 정약용의 작성한 <북암 이기양 묘지명>의 ‘칠실파려안=카메라옵스큐라’를 이용해 이기양의 초상화를 그렸다는 정약용의 증언을 통해 우리나라에 초상화를 그리는 방법이 카메라옵스큐라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태호 교수는 이 시기를 1780년대로 생각된다고 밝히고 있다.

“북암이 일찍이 나의 형(정약전) 집에서 칠실파려안(카메라옵스큐라)를 설치하고 거기에 거꾸로 비친 그림자를 따라서 초상화 초본을 그리게 하였다. 공(북암)은 뜰에 설치된 의자에 태양을 향해 앉아 있었다. 털끝 하나 잠깐 움직여도 묘사하기 어려운데 공은 의연하게 훑으로 빛은 사람처럼 오랫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역시 보통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다.” 북암 이기양 묘지명(부분)

이와 관련해서 조선후기 초상화를 그리는 기법이 변화하였고 이것이 카메라옵스큐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초상화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도화서 화원 이명기가 1780년부터 1790년까지 그린 초상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명호가 그린 <유언호 초상화>는 유언호가 우의정에 오른 기념으로 제작한 것이다. 초상화의 오른쪽 아래에 ‘용체장활시원신감일반’이란 글귀가 쓰여 있다. ‘얼굴과 몸의 길이와 폭은 원래의 신장에 견주어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란 뜻이다. 그림을 그릴 때 실제 유언호의 키를 반영하여 그림에 비율을 맞춰 인물의 절반 크기로 그렸음을 알 수 있다. 비율이 조정되고 옷 주름의 음영이 뚜렷해지면서 서양의 원근감과 입체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카메라옵스큐라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유언호 초상화> 이후로 조선시대 초상화의 기법은 전신사조+카메라옵스큐라가 결합

1) 한국에 있어서 초상화란 단어는 근래에 만들어진 용어이다. 문헌과 찬문의 기록으로 보면 진眞, 영影, 상象, 진영眞影, 영자影子, 진용眞容, 영상影像, 화상畫像, 영정影幀, 영첩자影帖子, 寫眞 등으로 지칭해왔다. 조선미, 초상화 연구, 문예출판사, 2007. p. 95.

되어 예술성을 뽐내는 많은 초상화들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리얼리즘’이라는 명목아래에 서양의 초상화들의 표현력보다 섬세한 초상화 제작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

카메라옵스큐라는 르네상스 이후 1830년대 까지 카메라 발명에 앞서 사용되던 광학기구이다.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욕망으로 카메라가 발명되고 다게레오타입, 리플렉스와 같은 필름카메라를 거쳐 디지털 카메라와 더 나아가 핸드폰 카메라로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현재에 이르렀다.

카메라옵스큐라, 초상화, 전신사조 등을 통해 눈으로 보이는 사실과 같아 보이고 싶은 인간의 욕망, 자신의 모습을 남기기 좋아하는 민족성, 이러한 것들을 통한 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핸드폰 카메라까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스마트폰(손바닥만 한 핸드폰)에 있는 작은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더 선명하게 더 손쉽게 사진을 찍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 개발에 몰두 하고 있다. 미국의 애플과 우리나라의 삼성, 엘지는 서로 앞 다투어 신기술 선보이는데 계속되는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는 어디까지 나아갈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카메라는 본디 서양의 기술이다. 그렇기에 미국의 애플이 이 기술에 대해서는 선두주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삼성, 엘지가 미국의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마트폰 사업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태생적으로 카메라 기술을 가진 미국과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 앞지락뒤지락 경쟁을 하고 있을까?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전신사조의 개념이 우리의 유전자에 뿌리 깊게 박혀있고, 이것이 카메라옵스큐라 부터 점차 발전된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에 반영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닌 우리의 민족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본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출시하는 스마트폰으로 현재 우리는 세상과 보다 가깝게 연결되었고, 더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서 ‘일’ 과 ‘놀이’ 를 변화시켰다. 이것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공유)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보았다.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²⁾’ 는 ‘4차 산업혁명’³⁾의 하위 개념으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같은 주제로 다양한 직군들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소통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TV와 신문으로 한정적인 매체로만 정보를 획득하던 것에서 나아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생겼고,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여론들의 반응을 알 수 있다.

‘SNS’ 는 국가, 인종을 넘어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진 개인적인 공

2)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3)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언급되며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로 컴퓨터,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정보화와 관련된 기술로, 형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음성, 사진, 동영상 등 정보를 개발하고 저장, 교환하는데 필요한 기술까지도 IT라고 볼 수 있다.

간이자 소통의 수단이다. 요즘 이러한 ‘SNS’의 순기능으로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BTS⁴⁾’의 세계적인 성공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열풍인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룹의 특성과 방향성이 인기의 가장 큰 요인일 수도 있지만, ‘SNS’로 팬들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큰 성공의 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프로듀서 방시혁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10대와 20대와의 SNS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제성이 방탄소년단을 잘 모르던 사람은 물론 기존의 미디어마저 관심을 끌게 했다”라고 하였다. 프로듀서의 말대로 방탄소년단의 적극적인 팬들과의 소통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겠지만 이러한 소통이 팬들의 충성심을 증폭시켰고, ‘ARMY’라 부르는 팬들의 ‘SNS’를 통한 소통과 공유가 사람들에게 방탄소년단이란 그룹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BTS 열풍’으로 ‘SNS’의 폭발적인 위력을 경험하는 동시대에 살고 있다. 찍어서 올린다. 그리고 공유한다. 또 소통한다. 카메라, 스마트폰, SNS로 이어지는 긍정의 나비효과로 현재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일’과 ‘놀이’에 대해 앞으로 어떤 또 다른 긍정의 나비효과가 일어날지 기대된다.

4) 우리나라의 7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영문명인 ‘Bang Tan Sonyeondan’을 줄여서 ‘BTS’라 부른다.

에세이 요약서

제 목 : 다시 인문학이다 !!!

첨단기술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을 기대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는 신석기시대 농경문화의 시작과 18세기 유럽을 강타한 산업혁명(the Industrial Revolution)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업혁명은 생산수단이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변하면서 생산력 증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커다란 변혁을 이끈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9세기 후반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진행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으며, 2012년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교수가 인터넷과 재생에너지를 원동력을 하는 3차 산업혁명시대를 예견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새로운 아젠다로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을 바탕으로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D 프린팅, 나노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현대 기술의 발전이 우리들 인류에게 얼마만큼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용자인 인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단순한 기술은 얼마 가지 못해 사장되고 만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개발된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컨텍스트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사상’과 ‘기술’의 올바른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문화가 탄생한다.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닌 문화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인문학적 통찰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아이폰’을 발명한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디지털시대를 이끌어간 사상가로서 추앙받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창의적인 도전가’이자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사고를 갖추고 있는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200여 년 전에 역사에서 만날 수 있다. 18~19세기 탁월한 사상가이자 뛰어난 경제가였던 정약용 선생이야말로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전형적인 융합형 인재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우리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말할 때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과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의미를 주고 있는 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에세이 본문

제 목 : 다시 인문학이다 !!!

첨단기술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을 기대하며...

인류의 탄생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나약한 존재에 속하는 인류가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약 300만 년 전으로, 1974년 미국의 인류학자 도널드 요한슨 박사팀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동부 지역에서 발견한 ‘루시(Lucy,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등으로 진화의 행진을 거쳐 지금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에까지 이르고 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과정 속에서 인류는 다른 종과는 달리 ‘언어’와 ‘문자’라고 하는 독특한 체계를 통해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후대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자는 인류가 진화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근대 사회로의 전환 - 1차 산업혁명

언어와 문자를 통해 인류는 역사시대 이래로 수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중에서도 인류의 가장 큰 변화를 이끈 사건은 신석기시대 **농경문화의 시작**과 18세기 유럽을 강타한 **산업혁명(the Industrial Revolution)**이라 할 수 있다. 농경문화의 시작이 본격적인 정착생활을 통해 인류가 문명의 발전과 생존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산업혁명은 생산수단이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변하면서 생산력 증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커다란 변혁을 이끈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76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1차 산업혁명¹⁾은 영국의 발명가이자 공학자인 제임스 와트(James Watt)가 기존의 증기기관을 개량하여 면직물의 대량생산을 이끌어내면서 본격적으로 그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이후 산업혁명은 철과 강철이라는 새로운 소재의 활용, 석탄과 증기기관 같은 새로운 동력원의 사용, 방적기나 방직기 같은 새로운 기계의 발명, 공장제라는 새로운 노동 분업 체계의 발전, 증기 기관차나 증기선과 같은 새로운 운송 및 통신수단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계의 발명과 기술적 혁신을 통

1)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은 대표적인 새로운 기술을 기준으로, 기계적 생산과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대량생산과 전기에너지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인터넷과 IT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및 빅 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 유럽 제국과 미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생산성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끈 산업혁명은 수천 년 동안 농업중심의 사회에 머물렀던 인류가 본격적인 공업화사회로 넘어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정치적인 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쳐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왕족과 귀족 중심의 봉건적인 지배체제를 붕괴시키고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을 이끄는 등 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 수립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함께 유럽이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역사에는 항상 ‘명(明)’과 ‘암(暗)’이 있듯이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현상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기술 혁신으로 인한 공장의 자동화로 인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공장의 출현과 새로운 도시의 발생으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떠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은 현저하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부녀자와 미성년들이 생존을 위해 취업을 해야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량생산과 인터넷의 시대 - 2, 3차 산업혁명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화학, 전기, 석유 및 철강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진행되면서 2차 산업혁명(Second Industrial Revolution)이 시작되었다. 토머스 에디슨, 니콜라 테슬라와 조지 웨스팅하우스 등이 전기를 이용한 획기적인 기술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면서 제2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은 영국, 프랑스, 독일로 확산되었으며, 전 세계로 파급되어 대량생산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였다. 한편, 2012년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교수가 그의 저서를 통해 인터넷과 재생에너지가 3차 산업혁명을 도래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격적인 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디지털혁명’으로 일컬어지는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IT기술이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3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던 동영상기기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를 시작으로 진화를 거듭한 동영상기기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전문가용과 일반인용의 구분과 그 활용 또한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PC의 발전과 보편화, 무선인터넷의 전면화, 내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바일 도구의 혁명적인 진화 등은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즐기는 세상이 되었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하여 SNS는 현대생활의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다.

한편 3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디지털기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매체(미디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미디어의 출현과 그 미디어들이 서로 자유롭게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제대로 구현된다. 카메라, 동영상, TV, PC, 인터넷, 모바일, SNS 등과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전시, 축제 등 모든 매체와 장르들이 서로 디지털기술로 연결되어 더욱 더 큰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디지털혁명으로 인하여 다양해진 미디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내부를 담을 수 있는 내용물이 없다면 단순한 기술에 그친다는 점이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디지털혁명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다양한 미디어에 들어가는 내용물인 콘텐츠의 대부분이 문화적인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인 ‘토이스토리’를 들 수 있다. 1995년 디즈니사에서 장난감을 소재로 만든 3D 장편 애니메이션인 토이스토리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처럼 애니메이션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3D 애니메이션이라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세계 어디에서나 공감할 수 있는 이른바 모든 사물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애니미즘’이라는 문화적인 공통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니미즘을 토대로 구성한 예로는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호두까치 인형’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산업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며, 최후 승부처 또한 바로 문화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획부분이다. 기획은 창작 소재의 선택과 콘셉트 설정, 그리고 스토리텔링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특히 문화콘텐츠 기획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는 창작의 소재라 할 수 있다. 창작의 소재가 결정된 이후 작품의 컨셉 및 스토리텔링의 전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토이스토리로 큰 성공을 이룬 디즈니사는 창작 소재의 확보를 위하여 외국의 전통소재와 이야기들을 구입하고 있으며, 작품의 90% 이상이 다른 국가에서 소재를 가져오고 있다. 결국 3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워드는 ‘미디어’와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첨단기술과 인문학의 통합, 새로운 차원의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새로운 아젠다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 시대를 일컫는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D 프린팅, 나노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²⁾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현대사회에서 통용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2) Klaus Schwab,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세계》, 2016.

더욱 더 펼치기 위해서는 첫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으며, 사용하기 어려운 기술들은 이용자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사라지게 된다. 둘째, 기술 개발의 기본 방향은 인간의 편의성과 필요성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도구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인간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인간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초기에는 기술 자체가 콘텐츠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VR(가상현실)은 개발 초기에는 간단한 가상현실 구현에도 이용자들이 신기해하고 즐거워 하지만, 재미있고 구체적이며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구축하지 못하면 단순한 기술 개발에 머물 수 있다. 아무리 최신 기술이라도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함께 개발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넷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기술 또한 함께 병행하면서 발전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1, 2, 3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들 또한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코딩(coding)프로그램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으로 부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코딩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점차 모든 이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오토코딩(auto coding)으로 대체될 것이다. 벌써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학생을 비롯한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오토코딩 도구를 공개하였다.³⁾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은 실제로는 3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슈밥 교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정의한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등은 아주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미 1950년대부터 2000년까지 등장한 기술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3차 산업혁명시대를 미디어와 콘텐츠와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콘텐츠가 왕이라고 한다면 콘텍스트는 신이다(Content is king, Context is god)”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콘텍스트(context)’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은 “20년간 지속되어 온 IT(정보기술)의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은 DT(데이터 기술)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즉 “고객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DT”로 고객의 ‘콘텍스트’를 담고 있는 데이터인 것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는 콘텐츠전문가 중심의 시대로 진행될 것이다. 콘텍스트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용자(수요자)의 콘텍스트를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문화상품 기획이 각광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의 콘텍스트를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 콘텐츠 기획의 가장 어려웠던 분

3) 김기덕, <4차 산업혁명시대 콘텐츠와 문화콘텐츠>, 《인문콘텐츠》 52, 인문콘텐츠학회, 2019.

아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을 통해 축적된 수많은 사용자의 콘텍스트를 다양한 문화기획에 활용할 수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현대 기술의 발전이 우리들 인류에게 얼마만큼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용자인 인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단순한 기술의 발전은 얼마 가지 못해 사장되고 만다. 인류의 공통적인 사상 또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애니미즘을 바탕으로 제작된 ‘토이스토리’의 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개발된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콘텍스트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문화인류 학자들은 ‘문화’를 정의할 때 ‘사상’과 ‘기술’의 올바른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문화가 탄생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사상)과 인도 전통의 조각 기술이 만나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인도의 마투라와 간다라지역의 불상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가고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의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처음 등장한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이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2014년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알파고가 몇 년 만에 대표적인 인공지능으로 발전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혁신적인 산업 기술은 인문학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와 같다. 마찬가지로 기술 개발자 입장에서 한자와 한문 등으로 이루어지는 고전 자료 또한 암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해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기술의 상생적인 또는 융합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문화가 사상과 기술의 결합에 의해서 인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처럼, 기술과 인문학을 결합하여 3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간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예를 통해 인문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를 처음 설립할 때 스티브 워즈니악의 기술력을 활용했으며, 빌 게이츠로부터는 프로그래밍도 할 줄 모른다고 비아냥을 받았다. 하지만 인문학적 통찰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아이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으며, 디지털시대를 이끌 사상가로서 추앙받고 있다. 인문학은 퇴보한 그저 구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을 인류의 행복과 편의성을 이끌어 줄 새로운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창의적인 도전자’이자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사고를 갖추고 있는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200여 년 전에 역사에서 만날 수 있다. 18~19세기 탁월한 사상가이자 뛰어난 경제가였던 정약용 선생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물상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간절하게 희망하는 한편,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학문 자세를 갖추고 백성을 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사상을 펼치고자 했던 정약용 선생이야말로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전형적인 융합형 인재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우리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말할 때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과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의미를 주고 있는 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에세이 요약서

제 목 : 정약용의 인간학

정약용은 산수[북한강]와 습수[남한강]이 만나 열수[한강]를 이루는 ‘두릉(斗陵: 마현)’에서 태어났다. 정약용의 삶을 돌아보면 한강을 꼭 닮았다. 한강이 굴곡 많은 물줄기를 이어가며 큰 바다로 들어가듯, 정약용도 역경과 부침의 삶 속에서 민족의 사표로써 큰 업적을 남겼다. 한강이 옥토를 적시며 백성들에게 물산을 제공했다면 정약용은 힘없고 고통 받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었다. 한강이 모든 계곡물과 시냇물을 품어내듯, 정약용도 자신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괴롭힌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껴안았다.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는 휴머니스트이자 리얼리스트, 그리고 선각자로서 정약용은 당시 사회의 병리적 현상들과 제도의 모순,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였다. 백성들의 고통스런 삶의 현장에서 조선의 사회의 문제를 직접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스러웠다. 정약용은 공평과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개하였다.

정약용은 “내가 글을 읽고 도를 배우는 것은 천하의 인명을 살리기 위함이다”(〈중두설〉중에서)라고 학문의 정의를 내렸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과 같이 고통 받는 아버지들이 없기를 바라는 정약용의 마음이 정약용 실학(實學)의 참 모습이다.

현재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구가하고 있고 4차 산업 시대를 앞두고 있다. 한편 우리 인류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테러와 종교간 갈등, 기후 변화, 난민 발생과 국경이동 제한, 군비경쟁 확산 등 인간 소외현상, 인간성 상실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세계는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은 그 대안으로써 충분한 가치를 담고 있다. 토지 개혁 정신과 함께 조세의 공정한 징수 및 운영, 관리들의 부패 근절 등을 주장하고, 교육 인적 자원을 중시하고 밑에서 위로 뽑아 올리는 백성위주의 정치 방법론, 인간의 욕망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정약용의 생태학적 개발론을 통해서 과학기술에 힘입어 최고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 인류가 자연파괴적 개발을 지양하고 생태환경적 전환해야 하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정약용의 오랜 꿈이었던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즉 신아구방(新我舊邦)의 꿈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인류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에세이 본문

제 목 : 정약용의 인간학

1. 열수[한강]을 닮은 정약용

정약용은 산수[북한강]과 습수[남한강]이 만나 열수[한강]을 이루는 ‘두릉(斗陵: 마현)’에서 태어났다. 두 물이 큰 물로 아우러져 먼 바다로 흘러가는 이곳은 실학을 회합(滙合)하고 집대성하여 다음 세대에 새로운 학문을 견인해준 정약용의 삶·학문과 운명적으로 닮아있다. 강이 지나가는 지역에 따라 이름도 달리고 구비마다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열수[한강]처럼, 인간 정약용의 다양한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겠다고 다짐하던 16살의 소년 정약용은 모험심과 탐구심이 많았다. 늘 지도를 휴대하고 자기 고장의 숨겨진 지리와 역사를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만년에는 병풍을 친 수상가옥을 마련하여 문방사우를 싣고서 한강을 떠다니며 산수를 감상하고 역사문화를 기록하였다.

유배시절 고향이 그리울 때에는 어릴 때 놀던 뒷동산과 집 앞의 한강을 멋지게 화폭에 담아내곤 했다. 그는 “나는 조선 사람이다. 기꺼이 조선의 시를 쓰겠다(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라고 선언하여, 조선인은 조선의 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 주대 있는 시인이었다. 그는 조국의 현실, 이웃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백성들의 고통에 귀기우리며 참되게 그려낸 리얼리스트이기도 했다.

정약용이 18년 동안 겪은 유배 생활은 매우 고달팠다. 그런 처지에서도 병으로 쓰러져가는 이웃 사람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서를 지었고 직접 치료에 나서기도 하였다. 가난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어린 남매를 보았을 때, 그 부모에게는 분노하면서도 남매에게는 무한한 연민을 억제하지 못했다. 정약용은 그런 뜨거운 가슴을 지닌 휴머니스트였다. 모함 받아 떠나는 2,000리 유배길, 한강 가에서 처자와 이별할 때에는 슬픔을 속으로 삼켜야만 했던 장부였다.

정약용은 참 스승이었다. 정약용은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제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공동으로 저술도 남겼다. 그 사제관계는 유배기간으로 끝나지 않았다. 스승을 따라 마현에 올라와 스승과 함께 학문에 정진한 제자들도 있다. 그리고 75세 되던 해, 강진 제자 황상은 스승의 회혼례를 축하하기 위해 강진에서 마현(남양주 조안)까지 1,000리를 달려왔다. 이미 정신이 혼미하던 노스승이지만 먼 길 가는 제자에게 붓과 함께 여비를 마련해주면서 학문을 놓아서 안 된다며 마지막까지 제자를 면려하였다.

정약용의 가족 사랑은 특별하고 깊었다. 자식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애정을 쏟았다.

딸이 시집가게 되었을 때, 가진 재화가 없던 정약용은 매화나 가지 위에 앉은 두 마리의 새를 그려서 딸에게 선물하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전했다. 농사짓고 누에치며 남편을 봉양하고 학문을 격려했던 부인에게는 연민과 애정이 교차했다. 부인이 유배지의 남편 걱정 때문에 잠 못들 때 다산은 ‘연서’를 띄우며 부인을 위로하곤 했다.

정약용의 삶을 돌아보면 한강을 꼭 닮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강이 굴곡 많은 물줄기를 이어가며 큰 바다로 들어가듯, 정약용도 역경과 부침의 삶 속에서 민족의 사표로써 큰 업적을 남겼다. 한강이 옥토를 적시며 백성들에게 물산을 제공했다면 정약용은 힘없고 고통 받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었다. 한강이 모든 계곡물과 시냇물을 품어내듯, 정약용도 자신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괴롭힌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껴안았다. 한강에서 유년과 노년을 보낸 정약용은 여러 물들을 아우르며 큰 바다로 나아가는 한강의 모습을 보며 학문의 방법을 깨쳤으리라.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로 무수히 정약용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한강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발견하였다. 평생의 고민이자 꿈이었던 민생을 위한 경제치용과 이용후생의 종합을 통하여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신아구방(新我舊邦)’ 그것이였다. 정약용이 품었던 꿈은 18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성되지 않고 진행형이다.

2. 부조리한 사회의 신음을 듣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는 휴머니스트이자 리얼리스트, 그리고 선각자로서 정약용은 당시 사회의 병리적 현상들과 제도의 모순,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였다. 백성들의 고통스런 삶의 현장에서 조선의 사회의 문제를 직접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스러웠다. 정약용은 공평과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개하였다.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 있는 ‘임금’ ‘지방관’에게 변화를 요구하였다.

정약용은 임금이란 땅을 가진 부잣집 영감과 같다고 보았다. 아들이 10명인 부잣집 영감이 100 두락의 밭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부잣집 영감은 열 두락씩 나누어 줄 것이다. 그래야 사는 형편이 같아지기 때문이다. 조선의 아들들은 공평하게 살았는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는데 조선은 공정한가? 무엇인가 거두어 들여야 한다면 많이가진 사람을 상대로 거두어야 옳지 않은가? 유독 힘없는 사람에게 굶어 가는가? 정약용은 끊임없이 사회에 의문을 던지며 그 해답을 찾아냈다.

정약용은 한 밤중에 책을 읽다가도 이런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공평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격분해서 책상을 치고 일어나 하늘을 보며 소리 질렀다. 《거가사본(居家四本)》란 가정운영지침서에서 모든 자식에 공평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이유일 것이다. 사회 운영 철학으로 ‘공평’을 설정하고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공평’이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평한 사회에 대한 정약용의 문제의식은 백성들의 제일 고통을 주는 제도 개혁으로 눈을 돌리게 했다. 제 몸 하나 가릴 길이 없고 이제 막 엄마뱃속에서 나온 어린아이도 군보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죽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는도 요역이 부과되어 온 나라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 하늘을 원망하는 소리가 넘쳐났다.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 일정한 양의 배를 거두어 균등한 방안이 시행되는가 싶더니 기득권층의 반발과 호도로 균등한 세금제도는 폐지되고 백성들의 원성이 커져갔다. 지역적 차별과 환곡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는 조선을 병들게 했다.

평양 지방 백성들은 오랜 세월 억눌려 살았다. 십 여대를 내려와도 변변한 벼슬자리 하나 얻은 사람이 적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겉으로 공손한 척해도 속은 불평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때 왜놈이 나라를 침범하자 의병이 전국에서 일어나 활약하였는데,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쪽 백성들만 수수방관하였다. 정약용은 그런 원인이 인재를 차별하고 지역을 차별하고 일부 계층의 권력 독점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여겼다.

제도 악용의 사례와 잘못된 운영의 본보기는 환곡제도에서 나타났다. 봄에 곡식을 군이 빌리지 않아도 되는 잘 사는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정작 가진 것이 없는 백성에게는 잘 빌려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빌려주면 때먹지 않을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가난해서 당장 곡식을 빌려야 하는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고 떠돌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관에서는 환곡제도가 있으니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의심되어 주저하게 되고, 잘 사는 백성들에게 억지로 빌려주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러니 잘사는 백성은 필요가 없는데도 억지추향으로 빌려 불필요한 이자를 물어야 하고, 못사는 백성들은 빌리고 싶어도 높은 이자 등이 부담이 되어 이용하지 못했다. 잘살거나 못살거나 모든 백성들이 싫어하는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환곡은 봄에 한 말을 빌렸는데 가을에 쌀 두 말을 갚아야 하고, 빌린 쌀은 좀이 먹은 것인데 갚을 때는 꼭 돈으로 내야 하는 이중고도 문제였다. 정당한 값은 쳐주지 않고 빌린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생긴 이윤은 교활한 관리의 배를 불리는 용도로만 쓰인다는 점이었다. 농사짓는 백성들이 논밭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환관이 모든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백성들은 고생만 할 뿐이다. 관리들은 굶어가고 벗겨가고는 것도 모자라 매질과 폭행을 일삼았다.

정약용은 사회 병리 현상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였다. 현실의 삶을 개척하면서 선현들의 고전을 탐독하고 우주의 질서를 깨우치며 인간으로써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3. 이웃에 대한 공감, 인간애의 실천

조선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회적 병리 현상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한 정약용은 낮은 인격으로 입만 열면 성인(聖人)을 언급하며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외쳐대지만, 정작 힘 없고 고통 받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원(鄉愿)이라 하여 가장 싫어하였다.

정약용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고 처지와 입장이 같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차별 없이 성(誠)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으로 유배 생활의 고통 속에서 쓸어져 가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포항 유배 시절인 1801년 6월, 정약용의 숙소를 지키고 감시하던 관인이 그 아들과 함께 급하게 정약용을 찾아왔다. 관인 부자는 포항 지역에 의술을 베풀어 달라고 사정을 했다. 당시 포항에서는 주민들은 병이 들면 우선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하다가, 그것마저 효험이 없으면 뱀을 잡아 먹고, 그것도 효험이 없으면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정약용은 그들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의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바닷가인 장기[포항] 사람들이 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바닷가라는 지역적 특성과 한약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약용은 여러 의서들을 조사한 후 시골 사람들에게 필요하면서도 간편한 처방만을 찾아 모았다. 병세에 따라서 치료 약제를 찾고 병명에 맞춰 정리하였다. 먼 곳에서 생산되거나 희귀한 것, 구하기 어려운 것, 시골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약재는 모두 제외시켰다. 포항 인근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와 포항 지역 사람들이 자주 앓고 있는 질병을 중심으로 맞춤형 의서를 만든 것이다. 이것이 《촌병혹치(村病或治)》이다.

이 의서는 경상도 일대에 널리 알려진 책이며 잘 쓰면 인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정약용의 자부심이 담긴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하나의 학문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저술을 지었다. 《촌병혹치(村病或治)》나 《의령(醫零)》의 경우처럼 병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걱정하고, 인민들의 고통에 눈감지 않은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더 의미를 더한다.

4. 마음 대안을 찾다

조선은 현실의 문제를 도덕과 이념의 틀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실행하려는 성리학의 나라였다. 정약용은 도덕과 이념의 잣대로 세상을 보기보다는 현실에 입각하여 실제 성과를 바탕으로 사람의 삶을 올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동양 고전을 연구하여 재해석한 결과였다. 공평무사의 자세로 세상을 보게 되면서 백성들의 신음 소리가 더욱 크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정약용은 지위와 권력이 없어 직접 해결할 수 없었지만, 이웃의 고통에 고개를 돌릴

수는 없다. 피가 묻은 양근[남자의 성기]을 손에 든 젊은 아낙네의 통곡 소리에서, 부모에 버림받은 남동생의 손을 꼭 잡고 길거리를 방황하며 애타게 엄마를 찾는 어린 여아의 눈물 앞에서 정약용은 한없는 연민을 느꼈다.

3년 전에 죽은 아버지와, 3세 아들이 모두 군적(軍籍)에 올라있기에 이 사실을 알고 바로잡아달라는 어느 가정의 호소를 관청에서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관아에서는 농사 일에 중요한 소까지 잡아가며 세금 납부를 독촉했다. ‘아들자식 낳은 내 죄로다!’라고 외친 가정의 통곡은 조선의 관리자들에게 외친 원망이었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인심을 야박하게 하고, 관리들의 부패는 극에 달하자, 마을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떠났고 가족은 이산했다.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어미는 자식을 버렸다. 부부는 사랑을 이어가지 못하며, 불쌍한 백성들이 천륜을 잃어버리고,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지경으로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가족이 이산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조선의 현실이었고 이는 인재에 가까웠다.

부자들은 일 년 내내 풍류를 즐기면서 그러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에 살면서 똑같은 밥을 먹고 사는 양민들은 크고 작은 세금을 전부 내야 했다. 정약용은 이런 사례들을 대하고 조선의 사회문제는 인재임을 알게 했고 왜 차별이 있는지 알게 했다. 경전과 고전의 가르침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었다. 군자(君子)의 마음이 전일하고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점에 다시금 깨달았다.

온 나라가 질병으로 여러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도 많았지만 사람들은 무지했고 돈이 없었으며 의술은 낙후하였다.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의원[의사]들은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구제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구제하려 하지 않은 것이나 같았다. 천연두처럼 치료가 까다롭고 예방을 해야 하는 질병은 의사들에게는 돈벌이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관리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질병 치료를 누가 쉽게 할 것인가.

아이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부모들은 나라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힘없는 백성의 고통에 눈을 감았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였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외면하는 나라에 불만을 가졌지만 힘이 없어 어디에 하소연도 못했다. ‘병이 들면 무당을 시켜 푸닥거리만 하고, (중략) 효험이 없으면 체념하고 죽어갈 뿐’ (〈춘병혹치의 서문〉 중에서)이었다.

정약용은 “내가 글을 읽고 도를 배우는 것은 천하의 인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중두설〉 중에서)라고 학문의 정의를 내렸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 생각했다. 정약용은 천연두로 죽은 아이들을 두척리에 묻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결과는 《마과회통》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과 같이 고통 받는 아버지들이 없기를 바라는

정약용의 마음이 담겨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눈 감지 않았던 정약용 실학(實學)의 참 모습이다. 이웃과 공감, 마음의 대화와 소통을 정약용의 인간학이 거기에 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과 같이 고통 받는 아버지들이 없기를 바라는 정약용의 마음이 담겨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눈 감지 않았던 정약용 실학(實學)의 참 모습이다. 이웃과 공감, 마음의 대화로 소통하는 정약용의 인간학이 거기에 있다.

5. 미래 인류의 가치를 일깨우다

정약용이 꿈꾸고 가꾸려고 했던 새로운 세상은 인간에 대한 가치와 올바른 인간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사회가 나가야 하는 방향과 자기 역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정약용은 자신이 경험한 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당시 사대부 일반에서 중시되었던 도덕이나 이념보다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지향했다. 자신이 직접 겪은 고통을 이웃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인간애는 여기서 비롯되었고 오늘날의 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가치이다.

현재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구가하고 있고 4차 산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첨단과학의 발달과 기계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인류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민족, 인종, 국가,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통한 공존공영을 지향하면서도 테러와 종교간 갈등, 기후 변화, 난민 발생과 국경이동 제한, 군비경쟁 확산, 경기침체 장기화와 일자리 감소하고, 생태계 파괴와 빈부 격차, 인간 소외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간성을 상실하고 세계는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은 그 대안으로써 충분한 가치를 담고 있다. 토지 개혁 정신과 함께 조세의 공정한 징수 및 운영, 관리들의 부패 근절 등을 주장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교육 인적 자원을 중시하고 밑에서 위로 뽑아 올리는 방식을 정당한 방식으로 설파했던 백성위주의 정치 방법론을 제시했던 정약용의 사고에서 자치시대의 시민 중심 정치 발전 등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정약용의 생태학적 개발론을 통해서 과학기술에 힘입어 최고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 인류가 자연파괴적 개발을 지양하고 생태환경적 전환해야 하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정약용의 오랜 꿈이었던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즉 신아구방(新我舊邦)의 꿈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인류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붙임 1]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 내 전자양식 작성해 주세요!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응모분야		<input type="checkbox"/> 중등부 <input type="checkbox"/> 고등부 <input type="checkbox"/> 대학부			
참가자 인적 사항	학 교	학(교)		학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H.P (학생)			
		H.P (부모)	※ 대학부 생략가능		
	E-mail			자택전화번호	
인지경로		<input type="checkbox"/> 공식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학교소개 <input type="checkbox"/> 지인소개 <input type="checkbox"/> 인터넷검색 <input type="checkbox"/> 기타			
<p>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 귀중</p>					

대회규정 준수 및 심사결과 동의 서약서

-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할 것!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의 모든 참가자와 참가자의 보호자는 참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본 대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심사결과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1. 본인과 본인의 보호자(이하, “우리는”)는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에 참가함에 동의합니다.
2. 우리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요강, 대회규정 및 준수사항, 본 대회의 진행절차와 심사과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우리는 본 대회의 진행절차와 심사과정에 대한 규정과 규칙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 법적 혹은 다른 형태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우리는 본 대회의 진행절차와 심사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과 본인의 보호자에게 귀결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중등부의 경우, 수상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국외연수(2020년 7~8월 중, 10일~15일간)에 참여 못할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나 다른 방식의 부상 수여는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본인과 본인의 보호자는 대회의 운영규정을 숙지하고,
운영요강, 홈페이지 대회 정보, 심사결과에 동의할 것을 서약하며,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대회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 대회규정 준수 및 심사결과에 동의함을 서약함 (체크표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가신청 및 수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대학부는 보호자 동의 생략가능

[붙임 2] 사진·영상 촬영,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할 것!

사진·영상 촬영,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정보의 수집·활용 목적	참가자 관리, 시상자 관리, 수상자의 경우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수상작 문집 등에 수록 대회 영상스케치, 향후 대회 홍보 및 자료집 제작에 활용
개 인 정 보 의 항 목	성명, 학교, 학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자택전화번호 ※ 수상자 :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항목 추가
사 진 · 영 상 활 용 처 및 활 용 콘 텐 츠	대회 공식 홈페이지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SNS 운영, 홍보물, 결과자료집 등 대회 진행 시 주최(주관) 측에서 촬영하는 영상 및 사진 일체
개 인 정 보 보 유 및 활 용 기 간	대회 신청서 및 정산서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5년)
동 의 거 부 권 리 및 불 이 의	정보의 주체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사진·영상 촬영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대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과
사진·영상 촬영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체크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법적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 귀중

[붙임 3] 응모작 이용 허락 동의서 –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할 것!

응모작 저작권 및 권리 귀속에 관한사항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수상작에 한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다.
- 이용 기간 : 신청접수일 ~ 대회 종료 후 1년
 - 이용 범위 :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수상작 문집 등에 수록
 - 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응모작 이용 허락을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가신청 및 수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응모작 이용 허락 동의서 >

본인은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에 참가하여 수상할 경우, 위와 같이 ‘저작권 및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에 명시된 기간과 범위 내에서 복제 및 배포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체크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대학부는 보호자 동의 생략가능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 귀중

에세이 요약서/본문 작성 요령 안내

※ 이 페이지는 에세이 작성에 참고하신 후, 응모 제출 시 반드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홈페이지 제공 양식(위쪽/머리말:15mm, 아래쪽/꼬리말:15mm, 왼쪽:20mm, 오른쪽:20mm)에 파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전자양식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차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 목차는 매수에서 제외됩니다.
3. 작성기준
<요약서> : (중등부/고등부) A4 1매 이내(표지제외),
(대학부) A4 2매 이내(표지제외),
(공통) 휴먼명조,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60%, 아래한글 2007 이상
<본 문> : (중등부/고등부) A4 4매 이상 5매 이내(표지제외),
(대학부) A4 6매 이상 8매 이내(표지제외),
(공통) 휴먼명조,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60%, 아래한글 2007 이상
4. 필요시 인용자료 및 데이터는 각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평가는 무기명(블라인드)평가로 진행되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작성자의 이름을 직접 본문에 기재하거나, 작성자의 소속을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필요에 따라 기호, 학문용어(외국어)의 사용이 가능하며, 글의 순서는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방식이면 무방합니다.
[예시] I, 1, 가, 1), 가)
그림이나, 사진이미지는 사용 불가합니다.
7. 파일명은 응모분야_이름_에세이요약서및본문.hwp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고등부_정약용_에세이요약서및본문.hwp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마세요.

에세이 요약서

제 목 : 이 부분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휴면명조 12pt, 성명 등 개인정보 기입하지 마세요. 빨간색 글씨는 작성 시 모두 삭제 바랍니다.)

I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마세요.

에세이 본문

제 목 : 이 부분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휴면명조 12pt, 성명 등 개인정보 기입하지 마세요. 빨간색 글씨는 작성 시 모두 삭제 바랍니다.)

I .